

# 광주 소비자물가 '자동차 연료값' 좌우

광주지역 소비자물가가 국제유가와 축산물가격에 반응하는 변동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 농축산물 가격 변동성 완화, 월세가격 안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기획금융팀 배석진 조사업역은 11일 발표한 '최근 광주지역 소비자물가 특징 및 시사점' 보도자료를 통해 2016년 하반기에 국제유가가 반등하면서 광주지역 휘발유 및 경유 판매가격도 상승해 소비자물가 오름세 확대로 연결됐다고 분석했다.

광주지역 소비자물가는 타 광역시에 비해 국제유가 및 축산물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등 변동성이 큰 편이며 가중치가 큰 임차료의 상승률도 높은 수준이다.

##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 배석진 조사업역 발표

### 타 광역시 비해 국제유가 및 축산물가격에 민감 운송연료 소비 비중 높고 가격수준 상대적 낮아

### 지난해 비사업용차 1일 주행거리 35.6km '최다'

이는 운송연료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가격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이다.

광주지역 소비자물가에 대한 석유류 품목의 가중치는 54.5(1000분비 기준)로 광역시 중에서 대구(56.2)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특히 자동차 이용이 많아 휘발유, LPG 등 자동차연료에 대한 가중치가 큰 편이다.

2016년 광주지역 비사업용 자동차의 1일 평균 주행거리는 광역시 중 가장 긴 35.6km에 달했다.

광주지역 대중교통 이용도 타 광역시 대비 낮아 휘발유 등 운송연료 가격 상승에 더 민감하며 가계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지역 월 평균 10만원 이상 대중교통비 지출 비중이 15.4%로 광역시 중 최하위 수준이다.

배 조사업역은 "지하철 노선 확대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노선의 다양화 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계약재배 확대와 도매 물류센터 확충으로 농축산물 가격변동성도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월세 선호 현상이 강화되면서 월세가격 상승폭이 확대되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분양과 금융지원 확대 등을 통해 전세 수급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배 조사업역은 "광주지역 소비자물가 오름세는 수요측 요인보다는 공급측 요인의 압력이 크게 작용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에는 석유류 및 농축산물 오름세 둔화 등으로 공급측 물가상승 압력은 완화되는 반면 경기회복 기세로 수요측 압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 관련형 전자담배, 세금↑ 가격도 4300~4600원선

관련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이 줄줄이 오르면서 소비자 가격도 오를 전망이다.

세금 인상에 따라 일각에선 현행 4300원인 아이코스·릴·글로 등 관련형 전자담배의 전용 스틱 가격이 5000원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현재 판매가 4300원에 개별소비세, 지방세, 담배부담금(인상 예상) 등 세금 인상 폭 추정치 1247원을 더해 산술적으로 계산해도 5547원까지 상승하기 때문이다.

다만 담배 기업들 입장에선 국내 관련형 전자담배 시장이 초기인만큼 당분간 가격인상의 폭을 크게 가져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11일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은 세금인상이 분명 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격 인상의 폭과 시기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KT&G는 계획을 명시하진 않았지만 "공격적인 시장정책을 구사할 것"이라는 표현으로 세금인상에도 가격은 인상하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다.

필립모리스인터내셔널(PMI)은 일반담배 대비 90%로 세율이 오를 경우, 세금인상을 반영해 아이코스(IQOS) 히츠(담배스틱) 소비자 가격을 현행 4300원에서 5000원 안팎으로 인상해야 사업 유지가 가능하다는 의사를 앞서 내비친 바 있다. 하지만 경쟁사의 가격 동결 방침 등 국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인상폭을 최소화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진다.



연말 홈 파티 외인으로 분위기 내세요~ 롯데백화점 광주점 지하1층 와인매장에서는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홈 파티에 잘 어울리는 와인 50여종을 선보이고 있다. 화이트, 레드, 로제 와인을 비롯해 샴페인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으며 12월 한 달간 할인행사도 진행한다.

## 어획량 감소 '金징어', 또 한달새 10%↑

### [11월 생필품 가격동향]

어획량 감소로 인해 오징어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월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11월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은 전월 대비 큰 폭으로 하락한 10개 품목 중 9개는 신선식품이었으며 일반공산품은 1개였다. 신선식품은 배추(-40.4%)·당근

(-16.0%)·무(-13.6%)·갈치(-9.6%)·돼지고기(-9.2%) 등이 하락했고 일반공산품은 치약(-10.4%)이 하락했다. 특히 배추와 무는 10월에 이어 계속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

당근·대파·오이 등은 전통시장이 상대적으로 저렴했으며 배추·갈치·차약은 SSM이, 무·돼지고기는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저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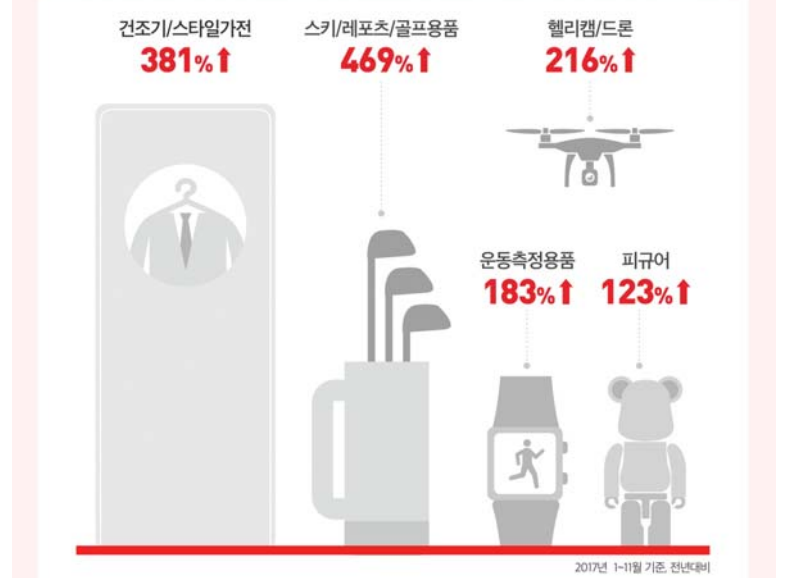
전월 대비 가격이 많이 상승한 10개 품목 중 4개는 신선식품이었

다. 가공식품 3개, 일반공산품 3개였다. 신선식품은 오징어(10.1%)·닭고기(4.2%)·감자(3.5%) 등이 상승했다. 가공식품은 분유(5.9%)·사이다(5.6%)·아이스크림(4.3%)이, 일반공산품은 린스(7.9%)·세면용비누(4.7%)·구강청정제(3.1%)가 상승했다.

특히 오징어의 경우 9월부터 지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오징어·닭고기·감자 등은 백화점이 상대적으로 비쌌으며 분유·린스는 SSM이, 세면용비누는 대형마트가 상대적으로 비쌌다.

뉴시스

## 4050 아재가 선택한 2017 소비트렌드



## 온라인몰서 4050 '아재' 들은 뭘 살까

최근 온라인몰 큰 손으로 떠오른 40~50대 남성들은 건강과 외모 취미, 여행 등 나를 위한 소비에 집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육선에 따르면 올해(1~11월) 남성들의 소비트렌드를 살펴본 결과, 꾸밈비용과 여행 상품 소비가 두각을 드러냈다.

### ◇멋진 동안을 위한 '꾸밈비용' 늘어

외모가 하나의 경쟁력으로 인식되며 올해는 중년들의 꾸밈비용이 눈에 띄게 늘었다.

모양과 색 등 분위기에 따라 색다른 연출이 가능한 선글라스·안경테의 판매량이 전년보다 3배(191%) 가까이 급증했다. 시계(233%)와 주얼리(184%)도 모두 세 지릿수씩 늘었다. 매일 새 옷을 입는 것 같이 옷의 핏을 살려주는 건조기·스타일가전에 대한 4050 남성들의 구매율이 5배(381%) 가까이 급증하며 새로운 IT(아이템)으로 등극했다.

### ◇4050도 현재를 즐긴다... '여행상품' 각광

올해는 '현재를 즐긴다'는 유행어가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 잡으며 여행 상품에 대한 4050 남성들의 구매율이 높았다.

주말에 가족 또는 혼자 떠나기 좋은 스키·레포츠·골프 용품도 5배(469%)나 증가했다. 테마파크·체험이공관(38%)도 판매량이 뛰었다.

국내여행상품(73%)과 국내항공권(69%)도 모두 오름세를 보였고 제주여행(97%)도 지난해 보다 찾는 이가 늘었다. 해외항공권(39%)과 해외여행(13%)의 남성구

매출도 각각 두 자릿수 성장했다.

### ◇탄탄한 바디라인, 체계적인 건강 관리

올해 4050 남성들 사이에서는 건강, 몸매관리용품이 인기를 끌었다. 운동측정기기나 스마트 헬스케어 등을 활용한 체계적인 관리가 주목 받았다.

만보기나 스톱워치, 스마트운동용품 등 일상생활에서도 건강을 챙겨주는 운동측정용품이 지난해보다 2배(183%) 이상 늘었다. 스마트밴드나 스마트체온계, 무선 혈압측정기 등 스마트헬스케어(51%)도 판매량이 증가했다. 파스처럼 붙이면 눈, 발, 혈액순환 건강에 도움을 주는 건강패치도 2배(128%)나 신장했다. 날씬한 몸매를 위한 다이어트용품(83%)도 두 자릿수 성장했다.

### ◇전동휠타고 드론 날리는 아재들

자신의 행복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4050 남성들은 여가생활에도 아낌없이 투자했다.

사계절 내내 취향 별로 즐길 수 있는 레포츠인 스케이트·승마·사격 관련 상품의 판매량이 275% 늘었다. 젊은층에게 인기가 많은 스마트 이동수단과 드론 등도 4050 아재들의 새로운 취미 생활로 떠올랐다.

헬리캠·드론(216%)과 액션캠(88%)이 모두 오름세를 보였고, 전동·전기레저도 119% 신장했다. 옛 향수에 젖을 수 있는 아날로그 감성의 중고음반·영화(188%)와 모으는 재미가 있는 피규어(123%)도 각각 2배씩 증가했다.



# 임산부 배려석, 누구를 위한 자리입니까?

세상에 올 소중한 생명을 위해 마련된 자리. 따뜻한 마음으로 임산부와 아이에게 양보해주세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더 큰 배려로 돌아옵니다.